

홈 > 뉴스 > 뉴스 > 북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모금행사 성공, 18,000불 기금 확보

재미한인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개최

2015년 11월 02일 (화) 11:36:25

노영진 기자 ✉ youngjinnoh15@gmail.com



▲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1,8000달러의 기금을 확보했다.[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지난 10월29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팰리스 식당에서 재미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재미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사용될 기금 18,000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 외에 미국 내 14개 지역협의회, 전현직 재미한국학교 이사장, 총회장 및 임원과 워싱턴 주재 총영사관, 주미대사관, 미국 내 여러 한인 단체가 함께 힘을 합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50여명의 내외의 귀빈들이 참석했다.

장동구 이사장은 “이곳 워싱턴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본부가 34년 전 세워진 곳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재미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가 성공을 거두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